



비운의 투수에서 '국민 에이스' 변신 울어버린 MVP 윤석민

비운의 에이스에서 MVP의 사나이로 우뚝 선 윤석민의 눈물에는 기쁨과 감동 그리고 미안함과 서러움이 있었다. 윤석민은 데뷔 첫해인 2005년 씩씩하게 공을 뿌리며 순탄하게 야구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다. 2007년 선발로 투입돼 3.78의 방어율로 7승을 기록했다. 초보 선발로서 나쁘지 않은 방어율이었지만 팀이 끝까지 추락

했다. 에이스 탈환을 목표로 했던 2010년은 야구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 6월18일 SK 전 선발로 나선 윤석민은 경기가 9회 전때로 마무리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락커를 손으로 내리쳤다. 윤석민은 "매년 뭔가가 부족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생각하며 준비를 하고 또 했다. 하지만 계속 일이 꼬이고 뜻대

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의 비난이 너무 아팠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아서 밤에 혼자 차를 몰고 나가서 울기도 했다. 나에 대한 것보다 부모님에 대한 약을 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했다. 아버지는 "야구를 그만 두겠다"는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윤석민은 야구를 그만 둘 생각으로 집을 싸들고 고향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야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윤석민은 광주우 아시안게임을 명예회복의 무대로 선택했다.

좌완투수 류현진과 결승전을 책임지며 재기를 알렸지만 여기에도 불운은 있었다. 난쟁이 대만전 선발로 출격했지만 엔트리 누락 소동으로 공 하나도 던지지 못하고 강판됐다.

"자신도 있었고 준비도 잘했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

윤석민은 2010년의 약동을 타고 올 시즌 20년만의 4관왕에 오르며 지난 불운을 떨쳐내는 듯 했다. 하지만 "MVP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7년의 골짜기 야구 인생을 보낸 윤석민은 결국 꿈에 그리던 MVP를 품에 안고 눈물을 보였다.

마무리 훈련을 위해 9일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일본으로 향한 윤석민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안 좋은 일이 많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로 끝이 났다. 어려움 속에 더 강해진 것 같다. 지금의 기분을 잊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 마운드에 오르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하는 동안 18번 패전투수의 명예를 썼다. 윤석민은 2007년에는 아키텐스건 부상과 최다패가 남았다.

2008년에는 2.33의 방어율로 14승5패1홀드를 기록하면서 우완급 선수로 자리매김 했다. 방어율왕까지 차지했지만 베이징올림픽이 열렸던 이 해에도 아픔이 있었다.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윤석민은 우여곡절 끝에 대체 투수로 대표팀에 발탁돼 눈물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9년에는 로페즈에게 에이스 자리를 내주며 V10의 조연에 머물

로 야구가 되지 않으면서 심리적으로 너무 쫓기던 상황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성을 잃었다. 나중에야 손이 풀렸다는 것을 알았다"고 후회를 했다.

이후 팀은 16연패의 수렁에 빠졌고 마운드의 짐도 커졌다. 부상에서 회복해 돌아와 불펜 역할을 맡았지만 이번에는 사구 논란에 휘말렸다. 자신 때문에 상대팀 선수가 다쳤다든 부담감과 일부사람들의 원색적인 비난에 시달리면서 겨우 올라선 마운드를 도망치듯 내려왔다.

윤석민은 "야구가 내 인연이 아닌가라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2007년 첫 선발 팀 골짜기에 18패 '멍에'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체 선수로 손
- 2010년 락커 내리쳐 손 골절·빈볼 시비
- "야구 그만두겠다" 짐 싸서 집으로
- 2011년 4관왕·MVP "내 인생 최고 순간"



10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된 광주일고 인조잔디운동장 전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고운동장 인조잔디 깔았다 무등기 사회인 야구 대회도 열려

내일 개장식

'야구 명문' 광주일고가 11일 인조잔디운동장 개장식을 갖는다. 광주일고는 지난 3월 인조잔디운동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6월 설계작업을 거쳐 7월 본격적인 공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15일 토목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8개월 만에 야구

장(1만2881㎡), 하키장(1186㎡), 농구장(783㎡), 트랙(681㎡·직선 5레인), 구령대 및 급수대를 갖춘 인조잔디운동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광주일고는 11일 오전 10시30분 개장식을 열고 인조잔디운동장 개장을 축하한다.

개장을 맞아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 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경기도 열린다. 12일 광주일고 운동장에서는 무등기 인왕리 토너먼트 8강전 4경기가 진행된다.

광주일고 김병재 교장은 "어렵게 고향학교에서 큰 야구장을 만들었다. 광주의 뜨거운 야구 열성과 함께 광주일고에서 선동열 KIA 감독을 비롯해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지금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런 계기를 통해 광주의 야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며 "광주일고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실력을 배양해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구회 대상에 故 장효조·최동원

투수상 윤석민
 타자상 최형우
 신인상 임찬규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한국야구의 영웅' 장효조와 최동원이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모임인 일구회(회장 이재환)가 주는 일구대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일찌감치 고(故) 장효조 삼삼 2군 감독과 최동원 전 한화 2군 감독에게 최고상인 일구대상을 주기로 했던 일구회는 2011 CJ 마구마구 일구상 11개 부문 수상자를 확정해 9일 발표했다.

올 시즌 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승률 등 투수 부문 4관왕에 올라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MVP)로 뽑힌 윤석민(KIA)은 최고투수상, 홈런·타점·장타율 등 타자 부문 3관왕을 차지하며 삼성의 정규리그 및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최형우는 최고타자상을 받

는다. 최고신인상은 고졸 새내기 투수인 임찬규(LG)에게 돌아갔고, 의지노력상은 입단 10년 만에 3할대 타율(0.301)을 기록하고 투지 넘친 플레이를 선보인 유격수 이대수(한화)가 차지했다.

지도자상은 임시로 지휘봉을 잡아 76경기 치르며 5할 성적(38승38패)을 낸 김광수 전 두산 감독대행의 몫이 됐다.

2군 경기이긴 하지만 프로야구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퍼펙트게임의 위업을 이룬 롯데 투수 이용훈은 특별상, 30년 동안 상무를 이끌었던 김정택 전 감독은 공로상을 받게 됐다.

프린트상은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뒷바라지한 삼성 구단인, 아마지도자상은 전국대회 2관왕인 천안북일고의 이정환 감독이 수상한다. 심판상은 나광남 심판위원이 받는다.

일구상 시상식은 다음 달 9일 오전 11시30분부터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배구 5경기만에 첫승 월드컵대회 2라운드

세계 랭킹 13위인 한국 여자 배구가 월드컵 대회에서 15위 케냐를 꺾고 5경기 만에 첫 승리를 쟁겼다.

김형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9일 일본 도야마 시타체육관에서 열린 2011 월드컵 여자배구대회 조별리그 2라운드 2차전에서 케냐를 세트 스코어 3-0(25-21 25-15 25-14)으로 완파했다.

1라운드에서 3전 전패를 당한 뒤 전날 세계 1위 브라질과의 2라운드 첫 경기에서도 접전 끝에 2-3으로 역전패해 승점 1을 올린 데 만족해야 했던 한국은 5경기 만에 첫 승리를 거두고 3점을 더 보았다. 케냐와의 역대 전적에서는 5전 전승을 거뒀다.

대표팀은 11일 오전 11시 삿포로에서 이탈리아와 3라운드 1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 광주 새 야구장 건립 관계자 미팅 외야 한 쪽 잔디석 ... 도시와 공감 광고판 없는 1·3루 '눈높이 설계'

사용자 중심의 최고의 야구장을 만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8일 저녁 강운태 광주시장이 광주 새 야구장 설계 담당인 공간건축의 전진근 부소장과 시인 30여명과 함께 새 야구장 건립에 관한 미팅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김상현과 투수 양현종도 참가했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KIA 팬들을 위해 인터넷 방송으로 행사가 실시간 중계가 되면서 온·오프라인 상으로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전진근 부소장은 신축구장에 대해 "비대칭형의 구장으로 국내에서 흔치 않은 디자인이다. 도시와 공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외야 한쪽을 잔디석으로 만드는 등 기존의 평범함을 뛰어 넘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기존의 구장과 달리 관람석 높이를 낮출 계획이다. 팬들이 선수들과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낮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눈높이 설계'에 따라 새 구장에는 광고판 없는 1·3루가 들어설 예정이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좌석 간격은 85cm로 해 현 체육 시설들의 평균 간격(80cm)보다도 넓다. 가로 35m·세로 15m의 국내 최대 크기의 전광판도 세워진다.

또 신축구장에는 168석의 장애인석이 들

지하철역·터미널·광주역에

임시버스 운행 주차난 해소

어서며 1700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된다. 경기장 자체에서 1100면을 소화하고 경기장 인근 노후 주택지 등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600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강 시장은 "자전거 인센티브와 지하철역, 터미널, 광주역 등에 임시버

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 가져오지 않은 사람을 우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현과 양현종도 선수로서의 바람을 밝혔다.

김상현은 "경기 하는데 무엇보다 잔디와 흙이 좋아야 한다. 선수들이 좋은 수비를 할 수 있도록 외야 펜스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선수를 전용 출입로 등이 마련돼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현종은 "사직·문학 같은 경우 불펜과 덕아웃이 분리되어 있다. 불펜과 덕아웃이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 투수들도 등판을 하지 않을 경우 팀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경기장 바닥, 외벽 등의 벽돌 기부와 부대시설 마련, 광주 구장만의 먹거리, 경기장 주변 주변 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공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인테너
 - 자동차경비일체, 빔더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족시트, 인조가족시트, 수입차 가족시트제조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일체
 -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 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족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족시트

최저가

-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펄싱 펌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펄싱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